

전남도, 코로나19 치명률 0.07%...전국 두번째 낮아

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의료기관 74개소 대상 사용현황 분석

예방접종·치료제 적극 사용 효과...투약자 87.8% 증상 호전

전남도가 코로나19 고위험군 환자의 위·중증화 예방을 위해 시행한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치료제 사용이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.

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의료기관 74개소를 대상으로 투약실태 및 효과 등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,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그 동안 8650명에게 치료제 처방이 이뤄졌다.

팍스로비드는 5027명(58.1%)으로 가장 많았으며 라게브리오 646명(7.5%), 렘데시비르 주사제 2977명(34.4%)에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.

치료제 투약 시작일은 평균 2.6일로, 나이별로는 60대 미만 1047명(12.1%), 60~70대 5155명(59.6%), 80대 이상 2448명(28.3%)으로 주로 60~70대에 투약됐다.

투약 효과는 증상 호전자가 87.8%로 높았고, 효과 미미 9.2%, 경미한 이상반응이 3.3%로 대부분의 투약한 환자는 코로나19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조사됐다.

전남도의 코로나19 치명률은 0.07%로 전국 평균 0.13%에 비해 매우 낮다. 전국적으로도 세종에 비해 두번째로 낮은 수치이다.

전남도는 “코로나19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적극 사용한 것이 도움이 됐다”고 진단했다.

전남도 관계자는 “고령자의 위·중증화 예방

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”면서 “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의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제의 투약을 우선 고려하고, 처방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한편, 정부에서는 먹는치료제 대상이 현재 60세 이상, 40~5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, 12~39세 면역저하자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점차 확대하고 동네 병·의원에서도 처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.

김재환기자



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

환절기 ‘리노바이러스’

감염 급증세...주의 당부

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큰 일교차를 보이는 환절기에 리노바이러스 감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.

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5일 “일선 병·의원 외래 호흡기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, 수집된 표본검체 중 감기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리노바이러스(rhinovirus)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”고 밝혔다.

1월 6.9%, 2월 5.2%, 3월 5.0%의 검출률을 보이던 리노바이러스는 4월 2

4월 3주차 호흡 표본 32.3% 검출

콧물·타액 전파...코로나 증상 유사

두통·인후통·기침 등 호흡기 증상

주차에는 21.7%(23건 중 5건), 3주차 32.3%(31건 중 10건)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.

리노바이러스는 연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나 봄과 가을철 환절기 기온차로 인한 체온조절이 불규칙해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주로 유행한다. 콧물이나 타액으로 주로 전파되고 두통, 인후통, 기침 등 코로나19 감염과 유사한 호흡기 증상을 보여 감별진단이 필요할 수 있다.

또 리노바이러스는 형태학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달리 피막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생활방역이 준수되더라도 유행이 이어질 수 있다.

김선희 신종감염병과장은 “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을 잘 지키면서 건강한 식이와 충분한 수면, 적당한 운동으로 면역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”고 말했다.

박재범기자

“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 좋아요”

방역당국, 영화관·노래연습장·마트·백화점서 취식 가능



“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 게 특별한 일이 될 줄 몰랐어요. 이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 좋습니다.”

2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영화관·공연장,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상점·마트·백화점 등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.

이날 오전 11시께 대구시 중구의 한 영화관. 영화관에 들어서자마자 팝콘 냄새가 가득했다. 평일 오전임에도 영화관 내 취식이 가능한 첫날인 만큼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.

팝콘 등 스낵을 주문할 수 있는 곳 앞에는 영화관 취식을 환영하며 이벤트를 하고 있었다. 다양한 이벤트를 하며 상영관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었다.

몇몇 시민들은 오랜 만에 팝콘을 사 들고 상영관으로 향했다. 이모(23·여)씨는 “오늘부터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을 수 있다고 하니 반갑다”며 “특별한 일도 아닌데 팬스레 반기게 된다”고 말했다. 이어 “이렇게 조금씩 일상으로

돌아갈 수 있어 좋다”고 덧붙였다.

몇몇 사람들은 아직은 취식이 ‘이르다’고 입을 모았다. 광모(54·여)씨는 “상영관에서 음식을 먹는 걸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”며 “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아 여전히 불안하다”고 말했다.

이날부터 백화점·대형마트에서도 시식 및 시음을 할 수 있었지만 마트는 아직 ‘준비 중’이었다. 같은 날 오전 11시30분께 대구시 중구의 한 백화점 마트. 백화점 내 마트에서는 아직 시식 및 시음 코너를 볼 수 없었다.

대구 북구의 한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였다. 마트 내 가판대에서는 여전히 상품만 진열해 놓고 홍보 중이었다.

시식 및 시음을 위한 종이컵들을 엿볼 수는 있었지만 시식 행사를 하지는 않았다.

장을 보러 왔다는 최모(28·여)씨는 “오늘부터 시식을 한다고 들었다”며 “이번 달 중으로 예전처럼 시식코너가 운영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”고 했다.

마트 관계자는 시식 행사는 ‘준비 중’이라고 전했다. 한 백화점 마트 관계자는 “시식 및 시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지침은 내려왔지만 오랫동안 안 해서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듯하다”며 “지침은 내려왔기 때문에 각 매장에서 시식 행사를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”고 말했다. 기동취재본부



철쭉 군락지 배경 ‘찰칵’

25일 부산 부산진구 백양산 애진봉을 찾은 등산객들이 활짝 핀 철쭉 군락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.

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.

네 119입니다.
무엇을 도와드릴까요?

“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”

“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”

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.

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, 하루 평균 1,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.

한국언론진흥재단
Korea Press Foundation

국민 정재홍·서관우·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. -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